



| 오병이어(五餅二魚) (작자 미상, 모르타르에 타일, 4세기 경. 타브가, 이스라엘, 오병이어성당)

금주의 성화

주님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곳은 갈릴레아 호숫가의 타브가라고 불리는 마을이다. 그 기적의 자리에 4세기경 성당이 세워졌고, 주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놓으셨다고 전해지는 바위 위에 제단이 놓여 있으며, 빵과 물고기를 묘사한 이 타일 그림은 그 제단 앞 바닥에 깔려 있다. 자세히 보면 빵 광주리에는 빵 다섯 개가 아니라 네 개가 들어 있는데, 빵 하나는 우리가 성체로 받아 모시기 때 문이라 한다.

† 오늘의 전례

예수님께서서는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요한 6,1-15 참조)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시는 데 쓰신 재료는 한 어린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까짓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하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작은 정성이라도 주님의 손을 거치면 무한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나도 주님께 도시락을 드리는 꼬마 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제1독서 2열왕 4,42-44

제2독서 에페 4,1-6

복음 요한 6,1-15

화답송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딤시다 • 7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 공공질서를 지킵시다

생활하는 성체성사



박상용 요한 신부 | 성토마스성당 주임

요즘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많이 다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밟으셨던 거룩한 땅이기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여러 곳들을 순례하면서 전해지는 느낌은 감격 그 자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오병이어 성당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곳 바닥에 모자이크로 새겨져 있는 빵 네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림이 인상적입니다. 왜 빵이 다섯 개가 아니라 네 개인가 하면 나머지 한 개는 미사 중에 사제들의 손에 의해 축성되고 있는 빵이라서 그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즉 지금도 나눠지고 있는 빵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은 성체 성사를 미리 보여주시고 또 그 의미를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대목은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합니다. 먼저 이 ‘아이’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그 익명성을 통해서 ‘모든 작은이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거칠고 보잘 것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양도 얼마 되지 않아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고 할 만 합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빵이 예수님의 손으로 전해지고 오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눠집니다. 더 이상 배고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많이 하셔서 군중을 먹이시는 기적을 통해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고 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내어 놓음은 곧 받아들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군중들에게 빵을 내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빵을 받아먹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빵을 내어 줌으로써 그 빵을 받는 상대방을 받아들이듯이 만약 자신이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 준다면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무대에서는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별로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우리가 가진 무엇을 내주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힘듦과 불평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그 시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한 무엇을 내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내주어야 할 무엇을 오늘 제2독서에서는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원리가 성체 성사의 삶이 내어줌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모든 이를 또 모든 순간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지금도 나눠지고 있는 그 하나의 빵이 될 것입니다. **27**



‘나주 현상’에 대한 광주대교구장의 지침

1985년 6월 30일 올리아의 집에 있는 성모 상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는 것을 시작으로 발생한 나주 현상에 대해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이셨던 요셉 라징거 추기경님의 질의와 지침에 의해 천주교 광주대교구에서는 ‘나주 조사위원회’를 구성(1994.12.30)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3년여에 걸쳐 조사한 결과, “그 현상들은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에 대한 공지문은 1998년 1월 1일 당시 교구장이신 윤공희 빅토리오 대주교님께서 교황청 신앙교리성과 협의한 후에 발표하였으며, 그 후 2008년 4월 23일 신앙교리성으로부터 받은 편지에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1년 신앙교리성은 다시 이 결론을 확인하고 “올리아의 추종자들에 의해 신앙교리성에 전달된 사례들은 그리스도교 신심과는 거의 연관성이 없으며, 성좌는 나주에서 기적적인 사건으로 알려진 소문에 관해 교회의 입장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첨부하였습니다. 이 서신에서는 광주대교구가 2011년 5월 1일 발표한 것처럼 광주대교구는 사목적으로 현명한 조치를 위한 공지문을 발표하도록 권한을 받았습니다. 광주대교구는 나주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건들과 여러 가지 현상들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톨릭신자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나주”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믿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광주대교구장인 저는 다시 한 번 “나주 현상에 관한 지침”을 공지합니다.

1.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의 교령(2008.1.21)에 따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성사나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금합니다. 모든 성사행위는 소위 임의적인 “경당”이나 “성모동산”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본당 사제들은 이 문제에 관한 교회의 입장과 금지에 관하여, 그리고 그 이유를 신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3. 위에 언급된 현상들이 초자연적이라고 증명되지 않았으며, 건전한 그리스도교 신심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상들을 홍보하는 어떠한 인쇄물이나 전자 매체를 통한 자료의 출판 또는 보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4. 고의적으로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이들은 현지 교구장에게 중대한 불순명을 범하는 것이며 계속하여 교회법(1371조 2항, 1373조)에 의한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2012년 7월 6일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 희 중 대주교

김희중

사랑과 일치¹의 빵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 | 교구 비서실장

주일 말씀

— 빵의 기적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제1독서에서 한 사람이 예언자 엘리사에게 보리 빵 스무 개를 가지고 옵니다.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그 빵을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빵이 부족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한 아이가 내어 놓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나누어주니 그들이 모두 먹고도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 일어난 이 기적을 통하여 파스카 축제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생명의 빵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어 모든 이를 배불려주신다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말씀과 교리

— 교회의 일치(Ecumenism)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이고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모든 백성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에페 4,5)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지금 갈라져있으며 이 분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장애가 됩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다시 화해하고 일치하여 교회가 이 세상을 복음화(福

音化)하는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일치운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그리스도교 교파들이 가톨릭교회에 순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 때에 믿음으로 의화되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들을 주님 안의 형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톨릭교회는 다른 문화와 전통, 신앙의 표현을 이해하고 존중하고자 노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치를 가로막는 장애들을 극복하여 하나이고 유일한 교회안으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3, 4).

말씀과 성사

— 생명의 빵을 통한 친교

빵을 많이 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성체성사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체성사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느님과 이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² ³

묵상해 봅시다.

-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은 무엇이며, 그 빵을 받아먹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 내 생각과 다른 형제들과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이 세 가지를 다 나누는 것이 바로 봉사”

학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야간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계시는 이석수 선생님은 얼마 전 어느 학교에서 분필을 사용하는 칠판을 전자칠판으로 교체한다는 소식을 듣고 필요가 없어진 분필과 지우개를 창고가 가득할 정도로 챙겨 오셨습니다. 바로 야간학교 학생들을 위해서입니다. 시간과 재능을 내어놓은 데 더해서 야간학교 운영을 위해 사비를 털어 후원까지 하고 계시는 이 선생님은 “제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 이 세 가지를 다 나누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학산 야간학교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열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학산 야간학교는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과정을 통해 배움의 시기를 놓친 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학산 야간학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사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쏟아 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산 야간학교 선생님들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고 실력도 월등히 뛰어납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쳐버렸지만 학업에 대한 꿈이 있으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시다. 비록 시작은 어렵지만 학산 야간학교에 오시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도울 것입니다.”



희망은 살아 있습니다.

학산 야간학교에서는 현직 교사가 아니어도, 교사 경력이 없어도, 대졸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누구나 선생님이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들은 한 푼도 받지 않고 일하시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생업에 종사하고 나서 피로한 몸으로 밤늦도록 애쓰는 것은 사실 돈을 바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봉사하고 싶다,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사회가 팍팍해지고 정이 메말라가는 듯하지만, 이렇게 자기 것을 내어놓고 봉사하는 데서 행복을 발견하는 분들이 계시는 한 희망은 살아 있습니다. **김광**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링크



피서지에서도 미사드려요

자세한 미사시간 안내는 교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경주 유적지, 보문 관광 단지

성건본당 ☎ (054)749-8900 (토) 17:00 (일) 6:30, 10:00, 19:30

성동본당 ☎ (054)776-1841 (토) 15:00, 19:30 (일) 6:30, 9:00, 10:30, 19:30

황성본당 ☎ (054)771-7817 (토) 16:00, 19:30 (일) 6:00, 9:00, 10:30, 19:30

구룡포 해수욕장, 해맞이 광장

구룡포본당 ☎ (054)276-2439 (토) 19:30 (일) 9:00, 10:30

대진·고래불·거무역·대신·장사·남호 해수욕장, 백암 온천

영덕본당 ☎ (054)733-0511 (토) 15:00 (일) 10:30

신애공소 ☎ (054)732-3519 (토) 16:00

후포본당 ☎ (054)788-2157 (토) 20:00 (일) 10:30

영해본당 ☎ (054)733-6880 (토) 20:00 (일) 10:30

망양·봉평·후정 해수욕장

울진본당 ☎ (054)782-2130 (토) 19:30 (일) 10:30

북면본당 ☎ (054)783-1965 (토) 16:00, 19:30 (일) 10:30

울릉도, 독도

도동본당 ☎ (054)791-2047 (토) 19:30 (일) 10:30, 19:30(8.1.~19.까지), 16:00(8.26.부터)

천부본당 ☎ (054)791-6047 (토) 20:00 (일) 10:30

직지사(김천)

대신본당 ☎ (054)437-1785 (토) 16:00, 19:30 (일) 6:30, 10:30, 19:30

평화본당 ☎ (054)434-1785 (토) 16:00, 19:30 (일) 6:30, 9:00, 11:00, 19:30

칠포·월포·화진 해수욕장

흥해본당 ☎ (054)262-2258 (토) 16:00, 20:00 (일) 8:00(공소), 10:30, 20:00

포항·송도·북부 해수욕장

덕수본당 ☎ (054)246-6311 (토) 19:30 (일) 6:30, 10:30, 19:30

죽도본당 ☎ (054)273-3441 (토) 19:30

(일) 6:00, 9:00, 11:00, 17:00, 19:30, 21:00

더욱 크게 확산되길...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 피정

2박3일 무료 치유 피정

기간: 8.3(금) 18:00~5(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새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성령세미나

제596차 청소년 · 제597차 일반모집

기간: 596차 8.3(금)13:00~5(일)17:00
 597차 8.10(금)9:30~12(일)17: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
 (고령 월막피정의집)
 문의: (054)954-0951 / (010)4419-1220
 596차(청소년) 문의(010)5585-9053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성소자 피정

일시: 8.5(일) 10:00~17:00
 대상: 해외선교사제에 관심 있는 젊은이
 문의: 골롬반 성소국, (010)6818-3737

젊은이 피정 - 침묵과 기도

기간: 8.11(토) 16:00~12(일) 16:00

장소: 진주 작은자매형제관상선교회
 주제: 내 마음의 보석상자
 선착순: 15명
 문의: (010)5805-7665 (무료)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대피정 (우연히 마주침)

기간: 8.10(금)~12(일), 경남산청
 대상: 35세이하 미혼여성, 3만8천원
 문의: 이 리디아 수녀
 (010)2570-0939

교육 | 모집

첫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8.11(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은총의 성모승천과 죄의 용서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루르드 샘물 증정)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9.8(토), 10.13(토), 11.10(토)

쁘르찌웅꼴라 전대사와 미사

일시: 8.2(목)
 6시: 고해성사, 7시: 미사

장소: 프란치스코눔(월배성당 뒤)
 문의: (070)4266-0045
cafe.naver.com/franciscanum

일본 성지순례 및 체험 여행

기간: 8.6(월)~14(화)
 대상: 초 · 중 · 고 · 대학생 및 일반인, 가족
 다음카페: 우아청
 문의: 우아청 청소년 영성의집
 (010)3883-7004

꽃동네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 8.16(목)~28(화)
 인원: 사회복지학부 64명
 간호학과 14명
 문의: (043)270-0100~0102

신난다 첫영성체 교리 교사 심화 연수

기간: 9.7(금)~8(토) 10:00~16:00
 장소: 부산푸른나무교육관
 마감: 8.24(금), 1일: 2만 5천 원
 네이버 블로그: 생활성서사
 문의: (010)3193-3348

미사안내

4대리구 경주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23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4대리구 포항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7월 23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성모기사회 월례미사	8월 4일(토) 오전 10시	월배수도원경당
푸른군대 첫 토요 신심미사	8월 4일(토) 오전 11시	성모당

황점신앙유적지 쉼터

자연을 접하고 휴식과 영적충전을 얻을 수 있는 교구운영 쉼터!!

원룸형	4인 수용	1일 40,000원
투룸거실형	8인 수용	1일 80,000원
세자요한의 집	8인 수용	1일 100,000원
로엘의 집	16인 수용	1일 200,000원

예약은 무학연수원 카페로~
<http://cafe.daum.net/jeonhwasoo>
 문의 **010-9889-3099**



로마 성모대성전 봉헌 축일

전대사 미사

일시: 8.5(일) 11:00

장소: 성모당

행사 | 모임

제2대리구 5지역 하양성당

주일 늦은 저녁미사 안내

시간: 7.22(일)부터, 주일 21:00

위치: 대구포항고속도로

와촌청동IC에서 5분거리

여행, 출장 중인 신자분들

주일미사 참여

문의: 852-2715

제1회 교구장기 게이트볼대회

일시: 9.11(화) 10:00 개회식

장소: 대구성서 실내게이트볼 구장

신청마감: 7.31(화)

문의: 250-3057 / (010)5798-0311

교육 | 모집

대안성당 성가대 반주자 모집

오르간 전공 반주자 모집 (유급)

문의: (010)2798-0911

다문화가정 공부방 봉사자 모집

일시: 매주 일요일 오후

대상: 초등부

모집: 교육계 종사자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5-0830

한티성지 주회 중국성지순례

기간: 8.29(수)~9.1(토)

출발/도착: 대구 국제공항

회비: 85만 원

관장 김종헌 신부 동행

문의: 성지여행사, 253-3399

(010)6503-0906

식사·목욕 자원봉사자 모집

장소: 대구작은예수교회

문의: 예수임마누엘 수녀

652-6740 / (010)4262-7970

개인, 레지오 단체 가능

청년 선교단원 모집

대상: 용모 단정한 20~30대

수습교육 후 활동, 봉사료 지급

문의: 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계산문화관 3층, 781-6100

SPC 에니어그램연구소 교육생모집

에니어그램1단계: 8.28(화) 저녁반

8.29(수) 오전반

문의: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254-2664 / 659-3455~6

가톨릭 청각음성언어센터 개원

활동: 보청기제작 및 청각

음성, 언어치료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서요한관 417호

문의: 850-2547, 3383

채용

성가요양원 야간근무 여직원 채용

자격: 요양보호사 자격증소지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서류 등

제출: pious8021@nate.com

또는 방문

문의: 안심원, (054)976-8122

월막피정의집 주방직원 채용

자격: 60세 이하 여자

문의: (054)954-0951

(010)4419-1220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www.holyfcac.or.kr

2012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추가접수: 8월, 12월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48

2012년 대구대교구 주소록 판매

가격: 5천 원, 616쪽

문의: 교구 문화홍보실

250-3052, 3074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법원방향
코리아 알트만
뉴영남
호 텔
법원
그랜드
호 텔
황금네거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티리아)
황금네거리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법원 방향
TEL 743-4488 FAX 744-1594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해아림한의원

뇌기능검사후련 / 집중력 / 우울증
공황장애 / ADHD / 틱 / 카성장

NAVER **해아림한의원**

원장 김 대 역(안드레아)

☎ 053)751-0071 2호선 수성구청역 4번출구 송원학원옆

월치과병원

D4m 카페 **달초의 치과이야기**

Tel. 053)741-1100

지하철 2호선 수성구청역 3번 출구 농협 5층
원장 신수용(루카), 조창식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카리타스복지교육센터

- 개인을 존중하는 교육문화
- 가톨릭 인간관, 사회관에 근거한 교육내용
- 실천을 지향하는 교육방식

교구청 내 가톨릭교육원 가동(3층)
☎ 053)255-7222

청소, 방역소독
저수조 청소, 시설경비

사회복지기업 (주)행복한세상

대표전화 053)524-1231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아동, 가정처럼 돌봄)
각종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안심원이 함께합니다"

교구 사회복지법인 안심원
성가요양원 · 성가어르신복지센터

입소 조건
성가요양원(장기요양1, 2, 3등급/시설급여)
성가어르신복지센터(장기요양1, 2, 3등급/시설, 재가급여)

입소 성 가 요 양 원 054)976-8122
문의 성가어르신복지센터 054)976-8123
<http://www.sug.or.kr>

치질 · 치루 · 항문병 수술

선일외과의원

원장 · 전문의 : 배선익(사도요한)

TEL : 745-6633~4

지하철2호선 범어역 3번 출구, 수성못방향-300m